전주대, '제1차 미래전북포럼'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1일 온누리홀에서 제1차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난양공대 조남준 석좌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해 '순환경제를 넘은 새로운 개념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전라북도의 산업생태계의 변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도내 대학 관계자, 산업전문가, 기업관계자, 지자체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매달 정기 회의를 개최, 그 일환으로 10월 19일 성영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의 '탄소중립을 위한 배터리와 수소기술'의 강연 주제로 전라북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배 총장은 "전라북도의 산업 생태계 변환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정책 제안 및 도내 대학·산업체·지자체의 참여로 글로벌 역량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장성지역 자료조사 자문회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지난 11일 장성지역 자료조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HK+연구단은 2018년 출범 이래 근현대 유교 단체 관련 자료 및 근현대 향교 생산 자료와 유림의 개인 문집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에 장성 지역의 사료 조사·수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근현대 자료조사에 대한 협조와 자문을 얻기 위해 장성의 여러 지역 전문가를 초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 성균관유도회 회장, 장성유도회장, 장성문화원장, 장성향교 전교 및 사무국장, 장성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과 장성 사료조사위원 등의 지역 전문가 및 HK+연구단 연구진 등 15여 명이 참석해 장성 지역의 유교 관련 자료조사·수집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찾아가는 진로 취업상담 진행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1일부터 약 4주간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졸업예정 학년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희망상담 선택 및 취업준비도와 취업의지 등을 체크해 1:1 상담 진행 시 개인별 맞춤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진로 및 취업, 구직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추가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상담 외에도 재학생 진로·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감상문 경진대회, 잡콕! 전라북도 일자리페스티벌 등 다양한 진로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월락초 6학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11일 월락초 6학년 13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자 마련, 심폐소생술을 배운 학생들의 수행 자신감과 가슴압박 정확도가 8주 후까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육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정지 환자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즉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이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의식 확인 방법 △영상통화, 앱, 문자메시지 등 다매체 119 신고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실전처럼 적용해 긴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 산실로

국립군산대, SW중심대학사업 추진 선포식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정동원)은 9월 12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SW중심대학사업 추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 전북도 및 군산시 관계자, 김영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 기업대표,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 지역 고등학교 교장, 군산경실련 대표 및 학생을 비롯한 많은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또한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관영 도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시장 등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의 선정으로 최장 8년간 약 200억(국비 150억, 대학·지자체·산업체 대응자금 포함)을 지원받아 혁신적인 SW교육시스템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컴퓨정보공학전공, 소프트웨어학전공, 인공지능융합전공, 스마트모빌리티전공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학부를 중심으로 기계공학부, 조선공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과, 의류학과, 법행정경찰학부가 참여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 및 국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AI·SW 융합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 선포식은 메타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DNA를 갖춘 META형 AI·SW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 과감한 도전'을 주제로 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추구하는 비전을 산·학·연·관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은 "SW중심대학사업 추진 선포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국립군산대학교가 SW교육, SW 융합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동원 국립군산대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산대학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양질의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작지만 큰 힘을 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제17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 개최

사회복지인 사기 드높이기 위해 진행… 숨은 일꾼 표창 5명 수상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안군협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장, 군의원, 주현오 경찰서장, 변성섭 농협 군지부장, 회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체육관에서 제17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는 지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인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군협의회 회원 및 임직원, 진안군 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평양권설경대표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사회복지인 대표의 사회복지윤리헌장 낭독과 숨은 일꾼을 찾아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유공자 표창은 진안군수상에 우광일(진안읍사무소 복지행정팀), 진안군의회의장상 박지은(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송승호(거성소방전기대표),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김영미(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에 채권자(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지회장)이 수상했다.

김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진안군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 종자들이 더욱 힘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축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 진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진안 복지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에 교재 전달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전체 재학생에 한문 교재 40여 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분원은 지난 11일 재학생에게 한문 교재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연구소에서 기증한 한문 교재는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사기영선(史記英選) 등 40여 권이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호남권 문집 번역본 총 64책, 교감·표점본 총 13책을 출간했다.

한문 교재 기증은 대학 연구소와 전주분원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후속 번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학년 재학생은 "고전학과 인문학 전문연구소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한문연수기관인 전주분원의 재학생들을 위해 한문 교재 기증을 해 감사드린다"면서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 기증받은 한문 교재를 번역본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은 교육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한문 고전과 문헌을 정리·번역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4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8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경찰서, 고창고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12일 고창고등학교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은 2학기가 시작하면서 여청계장·SPO2, 고창교육지원청 장학사, 고창고 교장·교사, 패트롤 맘 등 30여명이 학교폭력 예방 홍보지와 물티슈 등 홍보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 '청소년 SNS 등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협박죄 등 강력처벌' 등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여성청소년계는 10월 말까지 읍내권 초·중·고 학교에 대해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여 가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학교폭력 발생시 117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석현 경찰서장은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남원경찰서,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전개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 교통관리계(자치경찰)는 12일 녹색어머니회(회장 신현정)와 합동으로 도통초 정문 앞에서 하반기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아동안전)에 대한 학부모 및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올바른 안전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알리고, 운전자 대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 등을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편 남원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에서는 13일 중앙초, 14일 남원초·교통초, 15일 용성초등학교 등 계속하여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12일 고부면 백운마을, 덕안마을, 신중마을 등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안전 보행3원칙(서다, 보다, 걷다)가 인쇄된 야광반사조끼를 배부하며 무단횡단의 위험성, 야간 외출 시 밝은색 옷 착용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중점 안내했다. 또한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여 명절을 앞두고 교통사고 없는 교통안전대책 추진에 집중했다.

김한곤 서장은 "어린이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통약자가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홍보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지난 11일 추석 연휴 기간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장 6일까지 긴 추석에 귀성객들이 고향을 방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공설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8개소를 실시했다.

합동점검 중 소방 분야의 주요 내용은 △피난유도등·비상조명등의 점등여부 및 시인성·방해요소 확인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등 설치 및 작동여부 확인 △비상구 물건 적치여부 확인 등이며 미흡 사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소재실 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이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추석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홍보

무주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를 위해 '고향에 안전을 선물하세요'란 슬로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한다.

'고향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홍보는 위와 같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석연휴기간 소중한 가족에게 선물하자는 취지로 추진한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올 추석에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시기를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